

[COVID-19] Beyond this Challenge



The rapid spread of the coronavirus presents significant health concerns. In addition to the human impact, there is also a considerable commercial impact being felt globally. As viruses become airborne, the impacts will continue to spread. In fact, as present of the Fortune 1000 are already seeing COVID-19 disruptions.

It is possible that the coronavirus will eventually fade, but with a health emergency in progress. For most of us, we are not equipped to handle such a crisis.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global economy is still uncerta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virus, and how it is spreading, is critical to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virus on the global economy. This is a complex and evolving situation.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global economy is still uncerta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virus, and how it is spreading, is critical to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virus on the global economy.

코로나19(COVID-19)의 급격한 확산은 심각한 보건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춘(Fortune) 1,000대 기업들 중 94%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직면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강력한 협력과 민첩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KPMG는 본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취해야 할 즉각적인 조치와 중장기 조치들에 대해 제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혹은 산업 내 기업들은 주요 이해관계자, 직원, 고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임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피해 지역에 위치한 직원에 대한 관리와 출장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급망 분석을 위한 전담팀을 개설하고, 글로벌 및 지역별 공급체인의 흐름을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대체 수단을 신속히 찾아야 합니다. 또한 대체 수단에 대한 필요성, 비용, 위험 등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예측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운전자본, 재고에 대한 예측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 이후 기업들은 중장기 조치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운영측면에서 실시간 재고, 고객 수요, 공급역량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기획해야 합니다. 특히, 실시간 공급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End-to-End 공급체인, 마이크로 공급체인 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면서 단기간에 신제품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직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오피스 기술 도입 등 조직 내 기술환경의 개선도 중요합니다.

▲ 표지 클릭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임두빈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7469
doobeenyim@kr.kpmg.com

염이슬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3918
yeom@kr.kpmg.com

Keywords ▶

#코로나19 #COVID-19 #공급망관리 #End-to-End공급체인